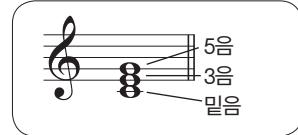


화음 지도법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6~47쪽
제재명	주요 3화음	지도서	306~307쪽

1. 3화음

2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소리 나는 것을 화음(Chord)이라 하며, 어떤 음을 기준으로 하여 3도씩 위로 두 번 쌓아 올려 만든 화음을 3화음이라고 한다. 3화음을 이루는 세 음에서 각각 맨 아래의 음을 ‘밑음’, 가운데 음을 ‘3음’, 제일 위의 음을 ‘5음’이라 하는데 밑음, 3음, 5음의 이름은 화음의 자리바꿈으로 배치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2. 자리바꿈 화음

화음의 밑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는 것을 ‘밑자리’라고 하며, 낮은 음 이외의 밑음이 오는 것을 ‘자리바꿈 화음’이라고 한다. 3화음에는 첫째와 둘째 자리바꿈, 7화음에는 첫째, 둘째, 셋째 자리바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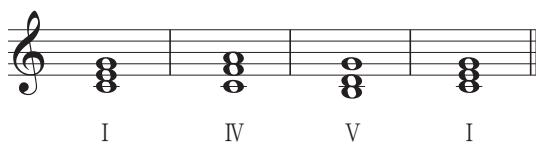
첫째 자리바꿈 화음		밑음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간 화음으로 3음, 5음, 밑음의 순서가 된다.
둘째 자리바꿈 화음		밑음과 3음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간 화음으로 5음, 밑음, 3음의 순서가 된다.

3. 다장조 3화음 구별하기

- 어울리는 화음과 안 어울리는 화음을 듣고 화음을 구별한다.
- I, IV, V도 화음을 들으며 몇 도 화음인지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4. 마침꼴 합창을 통한 화음 지도

마침꼴 합창은 악곡 구성의 최소 단위인 주요 3화음의 기능을 살려 화음 합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처음에는 두 성부로 나누어 두 음만 가지고 마침꼴 합창을 하다가 잘되면 3음으로 마침꼴 합창을 한다. 모음 발음(이-에-아-오-우)으로 노래 부르거나 리코더로 연주하며 화음을 느낄 수 있다.



출처 편집부, “음악 기초 이론과 실습”, 도서출판 다라, 1992, 74~76쪽.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관련 자료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8~49쪽
제재명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도서	308~309쪽

1. 음악의 열 가지 기능

- 음악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한다.
예 사랑, 슬픔, 암울 등의 감정을 느낄 때 음악이 자신의 감정을 대변한다는 점
- 음악은 미적인 즐거움을 더해 준다.
예 음악을 단순히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
-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예 여가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 등
- 음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예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바로 소통이 가능한 것
- 음악은 상징적 표현으로 제공된다.
예 ‘생일 축하 노래’, ‘축훈 행진곡’, ‘애국가’ 등
- 음악은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
예 음악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까딱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는 것 등
- 음악은 사회 규범과 관련된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나팔 소리, 군가, 묵념에 사용되는 음악 등
- 음악은 사회 기관과 종교 의식을 확인시킨다.
예 애국가를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위, 찬송가, 찬불가 등
- 음악은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이바지한다.
예 각 세대의 음악은 각 세대의 심리를 표현
- 음악은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예 월드컵이나 각 야구단의 응원가 등을 부를 때 같은 노래를 부르는 집단은 하나임을 느끼는 것 등

출처 김정희, “사회와 음악”, 부산대학교출판부, 2011, 157~160쪽.

2.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 1958~2009)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 스타이자 싱어송 라이터이다. 특히 마이클 잭슨은 인종 간의 음악 장벽을 부수어 없앤 동시에 듣는 음악의 시대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인물이다.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많은 매체로부터 ‘킹 오브 팝(King of Pop)’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오프 더 월(Off the Wall)’(1979), ‘스릴러(Thriller)’(1982), ‘배드(Bad)’(1987), ‘데인저러스(Dangerous)’(1991) 등이 대표 곡으로 꼽힌다.

출처 두산백과

3. 힐 더 월드(Heal the World)



1991년 11월에 발매된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Dangerous)”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작곡하여 불렀으며 약 50만 장의 음반이 팔렸다. 아동들을 위한 재단인 ‘Heal the World’에 기부하기 위해 발표되었고, 기아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9년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그의 장례식에서 추모곡으로 이 노래가 쓰이기도 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4.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 / 1955~)

이탈리아의 현대 음악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이다. ‘미니멀리즘 음악가’라고도 불리는데, 그가 추구하는 음악이 구절의 반복, 같은 음의 지속, 일관된 박자, 일정한 화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방향으로 장르를 고착화하지 않고 음악의 분위기, 스타일, 장르와 장르를 넘나드는 등 음악적 요소들을 드라마틱하게 융화한다는 점이 그가 만든 음악의 특징이다. 그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작곡하면서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고, 깊은 서정미를 담은 아름다운 음악 세계로 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대표곡은 영화 “언터처블”의 삽입곡 ‘디베니레(Divenire)’, ‘우나 마티나(Una Mattina)’ 등이 있다.

출처 2017. 05. 22, Focus news 기사 참고

5. 북극을 위한 비가(Elegy For the Arctic)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Greenpeace)’가 주관하는 ‘세이브 디 아크티(Save the Arctic)’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된 유튜브 연주 영상곡이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2016년 11월에 앨범이 발매되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한 빙하 지대에서 자작곡인 ‘북극을 위한 비가’를 빙하 위에 설치된 인공 무대 위에서 피아노로 연주했으며, 영상 속에서 빙하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 내린 얼음 조각들이 무대 주변을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 장면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 빙하를 배경으로 연주하는 모습

출처 주간조선

소금 전체 음 운지법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2~53쪽
제재명	소금 오름길❷	지도서	312~313쪽

▶ 소금 전체 음운지법

소금 오름길 ② 연습곡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2~53쪽
제재명	소금 오름길 ②	지도서	312~313쪽

▶ 밀양 아리랑

밀양 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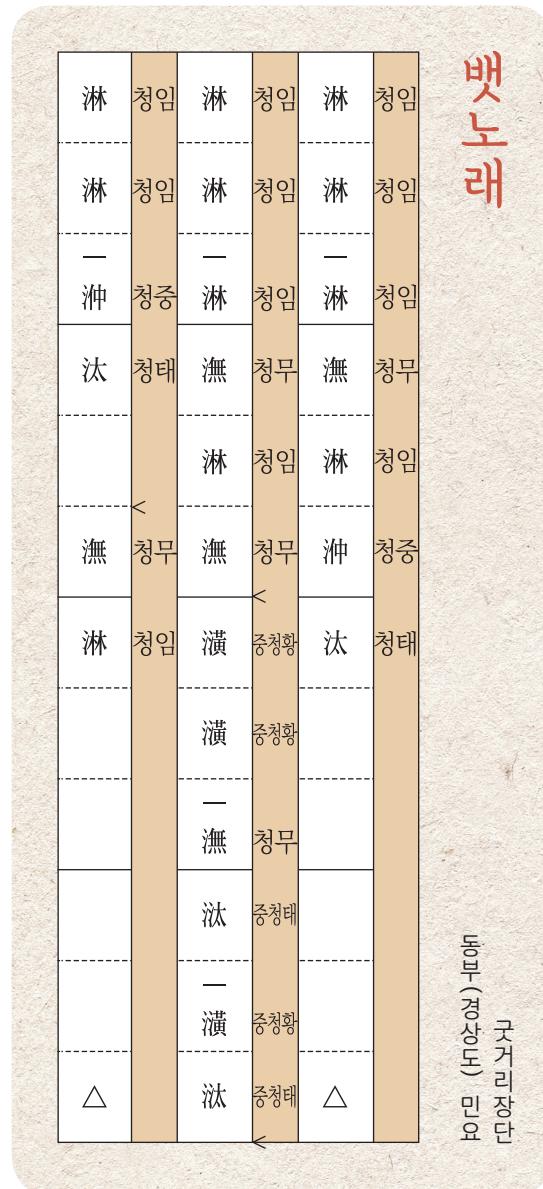
동부(경상도) 민요
세마치장단

洳	청고	남 — 林	남 임 남	洳 洳	청고 청고	浦 浦	청남 청남
汰 — 潢	청태 청황 남 청황	南 — 潢	청황 남	汰 潢	청태 청황 남 청황	淋 浦	청임 청남 임
南 潢 —		南	南	南 潢	청고 청고	浦 浦	청고
洳	청고	南 — 林	남 임 남	洳 洳	청고 청고	浦 浦	청남 청남
汰 — 淋	청태 청임 임	南 — 潢	청황 임	汰 淋	청태 청임 청고	淋 浦	청임 청남 임
洳 — 汰	청고 청태	南	남	洳 — 汰	청고 청태	浦	청고
潢	청황	浦 浦	청남 청남	潢	청황	浦	청남
潢 汰 潢	청황 청태 청황	淋 浦	청임 청남 임	潢 汰 潢	청황 청태 청황	淋 浦	청임 청남 임
南 — 林	남 임	洳 汰 洳	청고 청태 청고	南 — 林	남 임	洳 汰 洳	청고 청태 청고
南	남	淋	청임	南	남	淋	청임
— 潢	청황 남	— 浦 淋	청남 임	— 潢	청황 남	— 浦 淋	청남 임
南 — △		洳	청고	南 — △		洳	청고

단소 악곡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2~53쪽
제재명	소금 오름길 ❷	지도서	312~313쪽

▶ 뱃노래



- 높은음은 입술을 짹 펴고 바람을
세게 불어 넣어서 소리냅니다.

※ 소금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단소 수업 대체 악곡으로 활용하세요.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56~57쪽
제재명	풍물놀이	지도서	316~317쪽

1. 풍물놀이에서 나온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1978년에 풍물놀이에 쓰이는 악기 중 팽과리, 장구, 북, 징을 무대로 가져와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흔히 팽과리 소리는 천둥, 장구 소리는 비, 북 소리는 구름, 징 소리는 바람에 빗대어 말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악기는 불교의 사물(四物)과 관련이 있다. 네 사람이 타악기를 하나씩 다루면서 연주하지만 가끔씩 태평소 같은 가락 악기를 넣기도 한다. 연주하는 가락도 풍물놀이 가락을 다듬어 쓰는데, 가락 하나를 10~15분 길이로 줄여서 연주하기 때문에 풍물놀이처럼 춤을 추거나 진풀이를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분위기에 따라 빠르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풍물놀이와는 달리 사물놀이는 대부분 느리게 시작해 점점 빨라진다. 사물놀이는 이렇게 한껏 휘몰아치다가 숨을 고르듯 소리 가다듬기를 되풀이하는데, 이는 사물놀이의 특징으로 꼽기도 한다.

출처 윤혜신, “겨레 전통 도감-국악기”, 보리출판사, 2009, 13쪽.

2. 잡색

잡색이란 풍물 판에서 가장을 하고 치배 또는 구경꾼 곁에서 춤추며 잡기(雜技)를 펼치면서 굿판을 아우르는 광대이다. 풍물 판을 이루는 굿 바탕은 악기재비들이 주도하는데, 잡색들은 그 음악적 신명을 발판으로 삼아 풍물의 연행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과 의미를 실현한다. 각시, 할미, 양반, 포수, 스님 등의 인물의 외양을 본뜬 형태의 잡색들은 몸짓으로 흉내 내는 대상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양반이 부채질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행위, 포수가 총을 들고 대열을 정리하는 행위, 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린 채 다니거나, 각시가 탈을 쓰거나 화장을 한 채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그리고 무동은 새미 또는 중애와 같이 인물을 형상화하거나 농사짓는 모습을 몸짓으로 재현하거나 무동 타기와 같은 기예를 선보인다.

출처 박혜영, ‘잡색의 연행과 전승이 지닌 풍물사적 의미’,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3, 3쪽, 363쪽.

3. 풍물놀이의 진풀이

진풀이란 대형을 만드는 이동 방법을 말하며, 소고춤을 단체로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들이다. 수벽구(맨 앞에 선 소고재비)의 길 안내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벽구(대열의 가운데 소고재비)와 수벽구, 두 번째 소고재비와 수벽구, 끝벽구(맨 뒤의 소고재비)와 수벽구에 의해 대형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체 대형을 이끄는 이는 수벽구이다.

출처 양한, “제4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워크숍 및 연수 자료집 중 ‘정인삼류 소고춤’”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0, 33~38쪽.

4. 풍물놀이의 지도 단계

풍물놀이를 직접 연주하거나 감상할 때 할 수 있는 신체 표현을 위한 지도 단계는 다음과 같다.

출처 변미혜 외, “전통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283쪽.

